



## 산업보건의 큰 발전을 바라면서



신 동 천 교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아침**

저녁으로 옷 속을 스치는 가을의 찬바람이 아직은 기분 좋게 느껴지는 계절이다. 아름다운 단풍과 풍요로운 가을 들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기는 하지만 한편 떨어지는 낙엽과 제멋대로 이기도 한 가을의 찬바람은 허전함을 더해 줄 때가 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수확의 계절에 우리에게 이같이 풍요로움과 허전함이라는 상반된 두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자연의 오묘하고 심오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해 온 것들이 돌이켜 보면 풍요롭다고 할 수 있을진대 우리는 항상 앞을 보며 부족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갈망하는 듯 하다.

처음 어느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에는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10년 이상이 지나도 더 해야 할 공부가 많다는 생각에 실망하곤 한다. 이럴 때 공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위로를 얻는다. “사람이 노력하여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해도 실망하거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면 실로 군자(君子)라 할 수 있다” 는 가르침이다.

작년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산업보건의 연륜도 이제 불혹의 성상을 훌쩍 넘긴 셈이다. 계절로 치면 가을인 것 같다. 수확의 보람과 미래의 도전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 분야의 과제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리라 믿는다. 지난 40여년의 노력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새 봄을 맞이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직업병을 진단하고 사회적 이슈로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면 앞으로는 근로자 건강증진이라는 하나의 축과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직업병의 근원적 예방이라 할 수 있는 작업장 유해물질 관리 그리고 큰 규모의 코호트 연구를 통한 유해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분자생체지표를 이용하여 평가의 민감도를 높이고 연구대상자를 규모 있게 설정하여 검정력을 높여 유해요인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위해성 평가를 작업장 유해물질관리에 도입하여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고의뢰를 받고 망설였었는데 이 가을에 앞으로 산업보건의 발전을 바라며 생각해 본 것을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산업보건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